

Ecole Supérieure d'Electricité Supélec - 쉬페렉 고등전기학교

1894년 설립 이래 Supélec은 전기산업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며, 25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했다. 파리 근교, 메츠, 렌느에 각각 캠퍼스를 보유한 정보학과 에너지 분야의 엔지니어 그랑제꼴이다. 140명의 연구 교수진과 400명의 강사, 90명의 국립과학연구소와 대학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매년 2000명의 학생들(250 박사 과정생, 1300명의 연수생 포함)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매년 460명의 엔지니어 학위 과정생, 80명의 석사 과정생, 50명의 박사 과정생이 배출된다.

주요 전공

Supélec의 엔지니어 교육은 '기업 지식, 과학 기술 분야의 폭넓은 이해, 전문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노하우'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기업에서 맡게 될 여러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능력을 조화롭게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컴퓨터 공학, 원격 통신, 전기 신호 처리, 전기 공학, 자동화 공학과 같은 본교의 전문 분야에서 학생들은 심화된 지식을 키울 수 있다.

연구

Supélec은 각 연구소와 CNRS(국립과학연구소)에 소속된 465명의 미래의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산업적 혁신이 연구 정책의 기본 축을 이룬다. 매년 725여 개의 출간물과 17개의 특허, 50개의 박사 논문이 발간되고 있다.

장점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각 캠퍼스마다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어학실, 컴퓨터실, 스포츠 시설, 구내 식당 등 다양한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동아리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국제적 개방성은 본교의 오래되고 중요한 가치로 40%의 엔지니어 과정생은 공동학위 과정을 이수하며, 25% 가량은 외국에서 최소한 1번 이상의 인턴십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대학들과 협력 하에 국제 연구 실험실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에 있어 외국의 관련 기관들과의 공동 논문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위치 : Supélec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메츠, 렌느와 일 드 프랑스에 동일한 학위를 발급하는 3개의 캠퍼스가 있다. 모든 캠퍼스는 학습에 유리하고 풍요로운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유형 : 사립

재학생 수 : 2000명

외국학생 수 : 20%

수여학위 : 엔지니어 학위 - 석사 - 박사

프랑스 어학 프로그램 : 제공

외국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없음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 제공

연간 학비 : 엔지니어 과정 - 920 € / 석사 과정 - 231 € / 박사 과정 - 350 €

www.supelec.fr

Updated: 2015